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WSJ, 블룸버그 등 유료 구독자의 경우 법적 상황 때문에 원본을 링크로 연결한 점 널리 양해 요청드립니다)

[미국 경제]

- WSJ: 오늘 수요일 연준 금리 결정 관전 포인트?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이번 주 미 국채 금리 최저치 근접
- CNNBusiness: 미국인 신용점수, 2008년 금융 위기 아래 가장 빨리 하락

[물류]

- WSJ: 미 수출입업자, 중국 선박 입항 신설 요금에 우려

[무역 전쟁]

- CNBC: 연방 재무장관, “11월 전에 중국과 무역 합의 될 듯”
- CNBC: 엔비디아 CEO “자산 AI 칩의 중국 규제에 실망” 토로

[주택]

- CNBC: 모기지를 급격한 하락에 재융자 수요가 60%나 상승
- Bloomberg: 미 주택착공, 지난 5월 아래 최저치

[인공지능]

- WSJ: 에너지 소비하는 AI, 동시에 에너지 사용도 줄인다
- Bloomberg: 리프트와 웨이모, 내년 내슈빌에서 무임승차 제공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Fed Interest Rate Decision: What to Watch

오늘 수요일 연준 금리 결정 관전 포인트?

- 최근 일자리 둔화로 연준은 오늘 수요일 오후 금리를 0.25%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. 지난달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비해 고용이 더 우려된다고 했지만 금리 결정은 이견이 나올 수 있다.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나 동결 입장을 보일 참석자도 있을 수 있다.
- 분기별 경제 전망을 통해 파월 의장과 위원들은 올해 총 3차례의 금리 인하 또는 지난 6월에 전망했던 두차례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.
- 지난 9월 두 명의 이사인 Michelle Bowman 와 Christopher Waller가 금리 동결을 반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입장일지 주목된다.
- 또한 최근 트럼프가 지지한 경제자문관 Stephen Miran이 상원 승인을 받아 연준에 이사로 합류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할지 주목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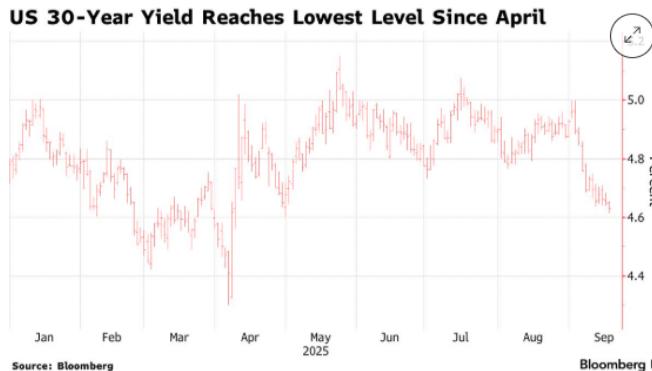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Treasury Yields Near Week's Lows Before Expected Fed Rate Cut

이번 주 미 국채 금리 최저치 근접... 연준 회의전에 상승세

- 투자자들이 오늘 연준이 올해 들어 첫 금리 인하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는 이번 주에 거의 최저치에서 거래되고 있다. 그러나 12pm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0.25%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.
- 연준 금리 인하 예상으로 3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스 포인트 낮은 4.62%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4월 30일 아래 가장 낮은 수치다.(오늘 오전 수치로 현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)
- 반면에 2년물은 별 변동 없이 3.51%에 유지되고 있다.

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Credit scores drop at fastest pace since the Great Recession

미국인 신용점수,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가장 빨리 하락

- 미국인들이 높은 생계비와 학교 부채 상환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미국인 신용점수가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.
- 관련 분석의 어제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관련 전국 평균 신용점수 지수(FICO)는 올해 들어 2포인트 하락했다.
- 물론 신용점수는 여전히 금융위기 때보다 상당히 높지만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보였다. 특히 이번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 용자, 신용카드, 개인 용자에서 연체하는 채무자 비율이 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물류]

WSJ: U.S. Importers and Exporters Fret Over Port Fees on Chinese Ships

미 수출입업자, 중국 선박 입항 신설 요금에 우려

- 미국 정부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제조 및 운영 선박에 입항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.
- 이와 관련 선사들은 미수출입업자들에게 즉각적인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새 입항 요금에 우려하고 있다.
- 이들 업체들은 무역 긴장과 수입 둔화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혼란과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.

WSJ 기사

[무역전쟁]

CNBC: Bessent sees trade deal likely with China before November deadline on reciprocal tariffs

연방 재무장관, “11월 전에 중국과 무역 합의 될 듯”

-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1월에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.
- 그는 11월 전에 중국과 추가적인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-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“회담 한차례 한차례마다 더 생산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중국도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”고 말했다.

CNBC 기사

CNBC: Nvidia CEO says he's 'disappointed' after report China has banned its AI chips

엔비디아 CEO “자산 AI 칩의 중국 규제에 실망” 토로

-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은 중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AI 칩 구매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.

- 당초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앤비디아의 중국 매출 15%를 정부가 받는 조건으로 이 회사 H2O AI 반도체 수출 라이센스를 허용키로 양측이 합의했다.
-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기술 기업에 앤비디아 AI 칩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.
- 그는 이같은 중국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“미국과 중국간의 협의해야 할 의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주택]

CNBC: Mortgage refinance demand spikes nearly 60%, as interest rates drop sharply
모기지율 급격한 하락에 재융자 수요가 60%나 상승

-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율이 6.49%에서 6.39%로 하락했다.
-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에 주택 재융자 신청자가 그 전주보다 58% 늘어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0%가 상승했다는 것이다.
- 재융자 평균 규모도 모기지은행협회의 지난 35년간 집계 역사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US Housing Starts Fall to Lowest Since May in Broad Decline
미 주택착공, 지난 5월 이래 최저치

- 미 주택 재고가 과다해지면서 건축업체들의 신규 주택 건축이 약화하면서 9월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.
- 구체적으로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8.5% 감소한 연율 1백31만채로 나타났고 단독 주택의 경우 7% 하락한 연율 89만채를 기록했다.
- 신축 허가 건수도 3.7% 줄어든 연율 1백30만채로 지난 5년 이상 최저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AI Is Going to Consume a Lot of Energy. It Can Also Help Us Consume Less.
에너지 소비하는 AI, 동시에 에너지 사용도 줄인다

- AI 이동 경로가 일부 화물 회사들의 연료 사용을 5%에서 10% 줄이고 있다.
- 또한 빌딩 내 설치된 AI 파워시스템은 건물 내 사람의 밀집도를 추적해 냉난방 시스템을 조정해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게 되면 이에 따라 관련 탄소 비율도 8%에서 19%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.
- 또 AI는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시켜 재생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유지시켜 자연 방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Lyft, Waymo to Offer Driverless Rides in Nashville in 2026
리프트와 웨이모, 내년 내슈빌에서 무임승차 제공

- 리프트는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어 내년부터 내슈빌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된다.
- 웨이모는 향후 수개월 동안 내슈빌에서 완전 자율 주행 운행을 시행해 내년에 웨이모 앱과 리프트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에게 로봇 택시를 시작하게 된다.
- 리프트의 운영 자회사인 Flexdrive는 그 도시에서 웨이모 차량의 유지, 인프라, 거점 기지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.

Bloomberg 기사

[오늘의 소개글]

미국 8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.6%↑...관세 불구 호조 지속

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 미국의 소매판매가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.

미 상무부는 미국의 8월 소매판매가 7천3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0.6% 증가했다고 16일(현지시간) 밝혔다.

8월 소매판매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(0.3%)을 웃돌았다.

직전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.5%에서 0.6%로 상향 조정됐다.

미국의 소매판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로 4~5월 들어 전월 대비 감소했다가 6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,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.

월가에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